

데스크시각

박치경



요즘 광주·전남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 극심한 생활고에다 지역현안마저 빼각거리는 소리가 들려와 주민들의 마음이 상해 있다.

기대를 모았던 서남해안관광개발사업 도시 조성사업(J프로젝트)은 부지 문제 때문에 난관에 봉착해 있다. 무안국제공항도 기대했던 것만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가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 추진중인 '5+2 광역경제권'도 사실상 광주·전남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높다.

새만금은 활기, 지역민 불만

J프로젝트의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움츠러드는 형국이다.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5일로 예정됐던 J프로젝트 개발계획 심의를 연기했다. 전남도와 농림수산식품부 간 간척지 양도·양수협약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

다. 행정 절차상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지역민들은 정부의 뜻뜻하지 않은 속내를 보여주는 것 같아 개운치 않은 표정이다. 광주·전남지역 핵심 현안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사이 지금까지 호남의 일원으

분리통치? 의혹 해소법은

로 여겨왔던 '이웃' 전북에서는 공공롭게도 굽직한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어 지역민들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한다. J프로젝트의 유사한 콘셉트를 갖춰 '한국의 두바이'로 조성하겠다는 새만금사업은 급기야 울리고 있다. 최근 국토연구원 등이 발표한 '새만금 간척용지 토지이용 구상안'에 따르면 간척지의 농지비율이 애초 72%에서 30%로 낮아지고 경제자유구역, 관광레저산업 등 복합용지(비농업용지) 비율은 28%에서 70%로 확대된다.

또 한국농촌공사가 지난달 24일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사업 시행자로 최종 확정돼 관련 사업의 실행이 올랐다. 사업부지 확보난으로 엉겨주춤한 J프로젝트와 너무나 대조적이다.

새만금 사업은 군산공항을 확장,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계획도 수반하고 있다. 무안국제공항이 제 궤도에 오르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사이 지적에 있는 군산공항이 확장되면 무안공항이 위축될 것은 뻔하다. 또 고군산군도 부근에 16선식 규모

분리통치? 의혹 해소법은

로 여겨왔던 '이웃' 전북에서는 공공롭게도 굽직한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어 지역민들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한다. J프로젝트의 유사한 콘셉트를 갖춰 '한국의 두바이'로 조성하겠다는 새만금사업은 급기야 울리고 있다. 최근 국토연구원 등이 발표한 '새만금 간척용지 토지이용 구상안'에 따르면 간척지의 농지비율이 애초 72%에서 30%로 낮아지고 경제자유구역, 관광레저산업 등 복합용지(비농업용지) 비율은 28%에서 70%로 확대된다.

로젝트와 새만금사업, 무안공항과 군산공항 등 전남과 전북의 핵심사업이 중복되고 있다. 새만금개발 사업을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한 것은 호남을 분리·통치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진정성' 보여줘야 풀려

전남도의 한 관계자도 "새만금 사업은 서둘러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전남의 J프로젝트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있다. 무언가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푸념했다.

물론 정부는 '디바이드 앤 룰'(divide and rule·분리통치) 주장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부인할 것이다. 한나라당 역시 한결같이 광주·전남 발전 지원을 강조해왔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할 게다.

그렇다면, 정부와 한나라당이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매우 간단명료하다. J프로젝트를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현안에 대해 이렇 이유, 저런 핑계 대지 말고 열심히 밀어주면 된다.

광주·전남 지역민은 더 이상 달콤한 립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다. 정부·여당이 지금까지 공언했던 약속을 지키는 '진정성' 보여달라는 것이다. /체육-어문체육부장unipark@kwangju.co.kr

시설

그린벨트 해제 수도권 규제 완화 시작인가

국토해양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산업단지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최대 308km의 그린벨트를 풀기로 의결했다. 해제지역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정책이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제면적은 분당신도시의 15.7배로 현재 그린벨트 총량(3천940km)의 7.8%에 달한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증고 제한이 폐지되고 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도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지만 석연치 않다.

그린벨트 해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개발을 가로막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주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동안 개발과 확산업 관련 첨단 R&D산업단지 등 광주시의 현안도 그린벨트가 풀려야 원할이 추진될 수 있다. 지방의 산업단지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다.

문제는 그린벨트 해제가 환경을 파괴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의 실효성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주무 부처이자 그린벨트 조정·관리를 총괄하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최근 '10월 중'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공식화했다. 그런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에 나선 것은 의심을 받을만하다.

그린벨트 해제는 수도권에는 주거단지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와 연구단지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변경하면 서울 인근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증고 제한과 임대주택 의무비를 하향 등의 규제 완화도 논란의 대상이다.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해야 한다. 그린벨트를 풀어 산업단지와 서민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발상은 개발 만능주의나 다름없다. 논란이 불가피한 만큼 해제하더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린벨트를 빌미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본격화하려는 의도를 경계한다.

일선 학교 '쥐꼬리' 도서 구입비 한심하다

광주시내 초·중·고의 도서구입비가 '쥐꼬리'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10곳 중 9개 학교가 교육청의 예산 지침에 훨씬 못 미치고 예산 집행도 엉망이라는 것이다. 1년동안 단 한 권도 사지 않는 학교도 있다고 하니 놀라울 뿐이다.

광주시교육위원회가 조사한 '2007~2008년 광주 초·중·고 도서구입비 실태'는 기대 이하이다. 지난해 조사대상 285개 학교의 89.5%인 255개 학교의 도서구입비가 기존보다 낮게 책정됐고 올해도 288개 학교 가운데 70.1%인 202곳이 기준에 미달했다. 이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도서구입비를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학교도 상당수에 달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것인지 한심하다. 광주시교육청은 독서특성화 교육을 특수사업으로 내걸고 '독서마라톤'까지 개최하고 있지 않느냐, '교육청 따로, 일선 학교 따로'인 현실에서 학생들의 독서교육이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제시한 도서구입비 기준은 학급당 초등·특수학교 40만원, 중·고교 50만원에 불과하다. 이 정도의 도서는 구입해야 독서교육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인 셈이다. 규정을 무시하고 도서 구입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일선 학교의 예산이 뼈대하라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편성된 도서구입비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관심만 있으면 연간 40~50만원의 예산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독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無等鼓

전남도가 뱃길복원사업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영산강(靈山江)이 자주 회자되고 있다. 영산강이라는 이름은 왜정 때부터 일반화된 이름이다. 그 이전에는 여러 이름이 있었다.

정약용은 영산강을 사호강(沙湖江)이라 불렀다. 곳곳에 백사장과 모래섬이 많기 때문이다. 곡강(曲江)이라는 이름도 있었다. 강의 흐름이 굴곡을 이루기에 곡(曲)자를 불렀다.

그런가 하면 나주 '다시면'(多待面) 지역에서는 금호강(錦湖江)이라 불렀다. 금호를 창입자 박인천 씨가 태어난 곳이다. 그래서 그의 호를 '금호'(錦湖)라 했고, 그를 이름도 그렇게 명명하지 않았나 싶다.

나주는 이 영산강으로 전라도 중심도시가 되었다.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전주 다음에는 광주가 아니라 나주였다. 호남을 전라도라 하는 것도 전주와 나주의 첫 글자를 따서 부른데서 비롯됐다. 그만큼 나주는 영산강을 매개로 호남 해상물류의 중심 역할을 했던 것이다.

전라도의 수많은 세곡(稅穀)을 실은 배가 출발하던 항구가 바로 영산포였다. 영산포에서 출발할 때는 서해안을 따라 김포를 거쳐 한양까지 물길을 이었다. 마치 고속도로와 같은 국가 동맥의 역할을 했다. 신안 일대 섬들이 나주군도라 표기된 것은 고려시대부터 전남의 섬 지역이 나주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 영산포라는 이름도 고려말 흑산도 사람들이 왜구를 피해 나주로 이주해 살면서 붙인 이름이다.

7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영산포에는 배가 드나들었다. 그러나 80년대 초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영산강하구에 뚝을 막으면서 뱃길이 끊겼다. 이 영산호 일부 상류가 돌고돌아 못사

는 6급수로 전락한지 오래다. 영산강 하구둑을 허물거나, 부분개방을 해서 바닷물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대목이다.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영산강 뱃길복원, 그 수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좋은 해결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김우성 정치부장 wskim@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박행순



요즘은 같은 글로벌 시대에 영어는 필수이고 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척도이다.

'영어 감성과학'은 영어와 과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감성이라는 그물로 보다 쉽게, 한꺼번에 잡으려는 시도이다. 감성과학은 자연과 사물에 대하여 관찰을 통해서 느낀 객관적 사실들을 체계화 및 도구화하는 것이다.

과학은 이성적 사고만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과학적 사고를 하게 하려면 이성뿐만 아니라 감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체험하며 스스로 느끼게 해야 한다.

필자는 초등학생들에게 엄마들은 모두 훌륭한 과학자라고 말해준다. 부엌이야말로 온갖 과학적 이론에 근거한 과학탐구의 실습장이다. 김치 담그고, 밥하는 것, 설거지할 때 물바누로 기름기를 씻어내고, 땀주 닦는 것은 모두 생활과학이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관찰 대상이고 과학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묻고 싶은 것이 오죽 많을까? 어른이 되면서 잃는 것 중의 하나가 호기심이고 따라서 질문도 사라진다.

과학영어를 생활 속에서 찾다보면,

영어와 과학이 감성으로 만날 때

사물을 대할 때 오감을 다 사용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다.

'물'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하여 H2O의 분자식 등 과학적 지식을 배우기 전에 물을 눈으로 보고(see),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어보고(hear), 냄새를 맡아 보고(smell), 혀로 맛보고(taste), 손으로 만져보아야(touch) 한다. 감성적 접근 과정에서 5개의 영어단어가 자연스럽게 소개되고, 물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쉬워진다.

우리 아이들은 과학자라면 에디슨, 아인슈타인, 퀴리 부인 등 주로 외국인을 떠올리고, 과학을 아주 먼 곳에 있는 어려운 대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필자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생화학 교과서에는 동네 미장원의 미용사가 과학기술인으로 소개된다. 파마와 브로드레이(blow dry)는 알파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의 구조 변화에 대한 과학이야기이다.

자연스레 영어단어를 익힐 수 있다. 향후 과학의 길을 가는데 영어가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길을 닦아 둘 필요가 있다.

영어 감성과학을 통해 어린이들이 습득하기를 바라는 궁극적 목표는 세계적 인 과학자가 되기 위하여 영어에 대한 두려움과 과학에 대한 거리감을 없애는 것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관찰하는 습관을 기르며 과학을 생활화, 내면화하는 것이다.

한편, 과학교육이 아이들로 하여금 사물을 분석과 조작의 대상으로 다루며 지배를 목적으로 삼는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차갑고 냉철한 두뇌로 과학적 사고를 하되, 이성을 돌이키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따뜻한 가슴, 행동하는 손발을 가진 실천적 삶을 살도록 아이들이 이끌어야 한다.

<광주전남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장·전남대 약대 교수>

은펜칼럼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사고 위험 높은 오토바이 불법 개조 철저 단속을

오토바이 불법 개조가 많다. 대부분 중국산 소형 오토바이를 개조한 것으로 사고 위험이 높고 특히 청소년이나 젊은층의 이용이 많아 걱정이다.

현재 법적으로는 50cc 미만 오토바이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다보니 중국산 49cc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고, 힘을 보완하기 위해 80cc 배기량을 불법적으로 개조해 타고다니는 것이다. 배기량 개조는 실린더를 깎아 공간을 넓혀 주고 그곳에 맞는 피스톤을 장착해서 파워를 키워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4바퀴로 안전하게 달리는 자동차조차도 처음 출고된 것과 다르게 튜

닝이라는 이름으로 개조를 할 경우 안전성이 위협받는다 것은 상식이다. 하물며 두 바퀴로 달리는 오토바이에다가 배기량을 높이기 위해 엔진을 불법 개조할 경우에는 심한 진동으로 오토바이 차체가 부러질 수 있고 심지어 폭발 위험성마저 있다.

또 이런 불법 개조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이들이 대부분 청소년·젊은층이므로 폭주족으로 돌변해 과속, 난폭운전 등이 난무하다. 더구나 이렇게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일산화탄소가 과다 배출되는 문제도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이수정·광주시 광산구 요기동

기고

한재만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광주시에서 열리는 제28회 전국 장애인체전은 88서울 장애인올림픽 20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체전이다.

또 축제의 달 10월에 열리게 돼 광주비엔날레와 함께 임방울 국악제, 광주 김치축제 등 문화·예술행사가 앞뒤로 풍성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즐거움을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다.

한편, 과학교육이 아이들로 하여금 사물을 분석과 조작의 대상으로 다루며 지배를 목적으로 삼는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차갑고 냉철한 두뇌로 과학적 사고를 하되, 이성을 돌이키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따뜻한 가슴, 행동하는 손발을 가진 실천적 삶을 살도록 아이들이 이끌어야 한다.

장애·비장애인 함께 하는 화합 체전

민 모두가 참여하는 이해와 화합의 장을 열어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가운데 성숙한 시민의식이 함께 어우러지는 감동체전의 열원이 담겨 있다.

이번 광주 장애인체전은 육상, 보치아, 골볼 등 21개 정식종목과 파크골프, 게이트볼 등 2개 전시종목 등 23개 종목이 30개 경기장에서 열리게 된다. 다소 낯선 경기종목과 경기방식을 통해 장애인과 장애인 경기를 이해하고 인식을 두텁게 하는 좋은 경험의 기회가 됐으면 한다.

대회 준비를 위해 광주시에서는 경기장 시설과 숙박·음식업소에 대해 관리하고 완벽한 준비가 되도록 추진하여 왔다.

경기장은 지난해 제88회 전국 체전을 치렀던 경기장을 중심으로 시설이 양호하고 장애인이 접근하기 좋은 경기장을

선정해 이동성 및 편의성을 확보하는 등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각 시·도 선수단이 목재 뿔 속 박업소 127개소와 음식업소 60개소에 대해서도 휠체어가 불편 없이 자유스럽게 다닐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하고 음식점에는 전용 식탁을 마련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광주시에서는 광주시장장애인 체육회 및 관련 경기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경기장시설과 숙박·음식업소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비장애인 함께 하는 화합 체전

또 꼼꼼한 배려와 정성을 다하는 시설정비로 모든 선수단과 손님들이 고향과 같은 포근함 속에 안정된 기량과 실력을 발휘하여 좋은 성과를 내고 우리 광주의 참 이미지를 대외에 널리 알림으로써 성공체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할 것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광주 장애인체전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서로 이해하며 마음을 나누고 어우러지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모두가 하나임을 인식할 모티브가 되고 소중한 경험으로 기억될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도 정성과 배려가 담긴 손길맞이 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시민 모두의 깊은 관심과 협력을 기대한다.

<광주시 체육지원과장>

학교 앞 등교 차량으로 혼잡...교문서 떨어진 곳에 주·정차를

초등학교 교문 앞은 대표적인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그런데 등교때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교문 바로 앞까지 아이를 승용차로 데려다 주는 학부모들로 교통 혼잡을 초래한다.

심지어 요란스럽게 경음기를 울리기도 하며, 차의 앞길을 가로막는 아이들에게 오히려 화를 내는 학부모들도 있다. '자신의 아이여도 저렇까,' 라는 의문이 앞선다.

대부분의 초등학교 앞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여러 교통표지판과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는 문구들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이차 저차를 피해 다니며 위험천만하게 지나다니는 아이들을 보자면, 그 표지판만으로는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자신의 아이가 무거운 가방을 메고 등교

하는 것이 안쓰러워 손수 데려다 주는 부모의 심정은 이해한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에게 위험을 초래하면 서가지, 심지어 학교 인에까지 승용차를 가지고 들어가야 하겠는가. 분명 그릇된 행동이다. 교문 바로 앞이 아닌 조금 떨어진 넓은 곳에 아이를 내려준다 면 교문 앞 혼잡은 막을 수 있을 것이고, 그만큼 아이들의 사고 위험은 줄어든 것이다.

학교 앞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더욱이 초등학교 앞은 어린이들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학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를 위한 것처럼 다른 어린이들에게 한 번 더 배려한다면 위험한 등굣길은 얼마든지 안전한 등굣길일 수 있을 것이다. ▲이지혜·인터넷 독자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www.kwangju.co.kr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가)1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편집 부 2200-629 정 치 부 2200-616 경 제 부 2200-617 사회 1부 2200-618 <F A X 222-4267>	사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 문 화 회 사 부 2200-626 어 문 회 사 부 2200-628 체 육 팀 2200-627 사 진 부 2200-690 조 사 부 2200-570	경 영 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광 교 미 케 영 국 2200-521 <F A X 227-9500> 자 인 2200-536 <F A X 02-773-9331>	문 화 회 사 부 2200-541 <F A X 222-0195> 독 자 서 비 스 국 2200-551 <F A X 227-9500> 서 울 지 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